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광주·5월단체 거센 반발

“5·18 학살 원흉 전두환, 호남 정치·경제 차별, 낙후 심화”

尹 “다 잘했다는 것 아니고 권한 위임 부분 배울 점” 해명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호남 정치권과 5·18 관련 단체 등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호남 폄훼”라며 강력 반발하면서다.

윤 후보는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 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 정치를 하

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말했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말한 거다. 그 당시 정치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해라’며 웬만한 거다 넘겼다고... 당시 3저 현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잘 돌아간 거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어 대권을 잡은 뒤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정국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지역과 출신 등을 따지지 않고 최고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한 뒤 시스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은 해보면 어렵다. 경제 전문가라 해도 경제가 여러 분야 있어서 다 모른다.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분들을 내세워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수사하면서 저도 일반 국민 못지않게 익혔지만 조금 아는 것 갖고 다 할 수는 없다”면서 “최고 전문가 뽑아서 임명하고 시스템 관리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챙길 어젠다만 챙길 것이다. 법과 상식이 뒷받침 이것만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5·18 단체는 윤 후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사죄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성명에서 “5·18 학살 원흉인 전두환을 비호한 윤석열은 광주와 호남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

는 발언을 했다”며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2019년 국회에서 5·18을 왜곡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상처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국민의힘도 오월단체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호남 정치권도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두고 호남 폄훼라고 규탄했다.

광주시당은 “윤석열 후보가 호남이 전두환 정치를 옹호했다고 하는 부분은 도

저히 목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망언”이라며 “전두환 집권 기간 호남은 정치적 차별 뿐 아니라 경제적 차별까지 받으며 낙후의 길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또 “엄혹한 전두환 통치 기간에 그를 칭찬하고 찬양할 호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그분이 집권 7년 동안 잘못한 것 많고 정치를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며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게 그 후 대통령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이며 호남분들 중에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페퍼스 광주 홈 개막전 응원 열기
광주를 연고로 한 호남권 유일의 프로배구단인 시메퍼스의 홈 개막전이 19일 저녁 영주종합체육관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려 관중들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코로나 주춤...광주, 닷새 연속 한 자릿수

완도서 외국인 선원 출항전 검사서 무더기 양성 판정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세가 5일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한 반면 전남은 외국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신규 확진자 수는 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천265명으로 집계됐다.

14일 6명을 시작으로 ▲15일 6명 ▲16일 9명 ▲17일 4명 ▲18일 3명 등 닷새 연속 한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병상 가동에도 여유가 생겼다. 현재 코로나19 전담 병원과 생활 치료 센터 등에 입원 중인 환자는 병상 수는 88개로 전체의 19%(462병상)에 불과하다.

또 시민 144만여 명 중 65%인 93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 집단면역 목표인 70% 달성은 눈앞에 두고 있다. 1차 접종 완료자는 전체의 77.6%인 111만8천명이다.

전남에서는 전남 14명(완도 8명, 목포 2명, 해남 2명, 장흥 1명, 무안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완도 확진자 8명은 모두 외국인 선원으로 출항 전 선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목포 확진자 2명도 외국인 근로자로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이 외국인 선원들이 머물며 접촉한 이들을 가려내는 등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승지·임후성기자

‘2021 국제농업박람회’ 내일 나주서 개막

한국형 미래농업 모델 제시·농산 기업 비즈니스장 기대

국제 농업 문화의 흐름을 엿보고 한국형 미래농업 모델을 제시할 2021국제농업박람회가 20개 국가와 26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1일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막한다.

국제농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 전문 종합박람회다. 코로나19와 기

후변화 등 위기 속에 농업의 중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케이푸드(K-Food)의 근원인 전남 농산물의 뛰어난 품질을 홍보하고 농업기술 정보 교류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농산 기업의 국내외 유통망을 확대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박람회는 민·관이 협력하는 열린 박람

회를 지향,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FAO한국협회,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가 공동 주관해 농산 비즈니스 장이자, 한국형 미래농업 모델을 제시하는 장으로 펼쳐진다.

26만㎡ 부지에 3개 존 8개 행사장으로 운영한다. 스마트농업 1·2관이 있는 미래농업존은 스마트(디지털) 농업의 이해와

한국형 미래농업의 모델을 제시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꾸민 스마트농업관은 농업 현장 작업을 손쉽게 하고 효율을 높이는 드론과 로봇 등 미래농업 핵심기술을 선보인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IoT 방제드론 기술은 드론의 작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은 “농산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를 선도하는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 마을버스 ‘적자’ 36대 11월 휴업 신고

광주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긴 적자 누적을 이유로 멈춰선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4곳은 다음 달 1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휴업하겠다고 최근 신고했다.

광주에 신고된 마을버스는 모두 72대로 예비차량 6대, 기존 휴업 또는 미운행 16대를 빼면 모두 50대가 운행하고 있다.

업체들이 휴업하게 되면 이 가운데 36대가 운행을 멈춰 광산구 일대를 오가는 1개 업체, 14대만 남게 된다.

업계에서는 마을버스 운송 수입이 2019년 57억8천여만원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에는 42억8천여만원으로 26% 줄었다고 호소했다. /이종행기자

Today

- 이슈&인물 김홍식前광주서부교육장 5면
-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탈선 우려 6면
- 정사로 읽는 전라도 역사기행 14면

2021 국제농업박람회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

2021. 10.21.~10.31.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주최 전라남도

주관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KASFI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FAO 한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교육청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NH농업 한국관광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 한국도로공사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차세대 트로트 스타 배아현